



5일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 앞 거리에서 한 시민이 'No vote No kiss(투표 없이 키스 없다)'고 쓴 피켓을 들고 4·11 총선 투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호·최종석·진경락·김충곤 컴퓨터 자료 파기 전날 밤 회동

(2010년 7월 4일)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확인
증거인멸 사전모의 단서 포착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에서 “2010년 7월 4일 밤 진경락(45) 당시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이영호(48)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장진수(39) 전 총리실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에게서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를 받았던 날이다. 검찰은 이날 회동에 김충곤(56) 전 총리실 점검1팀장이 동석했으며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 뿐 아니라 진 전 과장에게도 컴퓨터 파기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배경을 조사 중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실제 그날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가 이뤄진 기지국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과장과 최 전 행정관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난 뒤 저녁 무렵 이 전 비서관의 집이 있는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이들 3명이 이후 김 전 팀장의 집이 있는 강남구 일원동으로 함께 이동했다는 흔적도 포착했다. 김 전 팀장은 당일엔 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밤 진 전 과장으로부터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튿날 오전 실제로 파일들을 삭제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 전 비서관이 당시 나뿐 아니라 진 전 과장에게도 자료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7월 7일에 “컴퓨터들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하라”는 최 전 행정관 지시에 따라 ‘다가우징’ 방식으로 컴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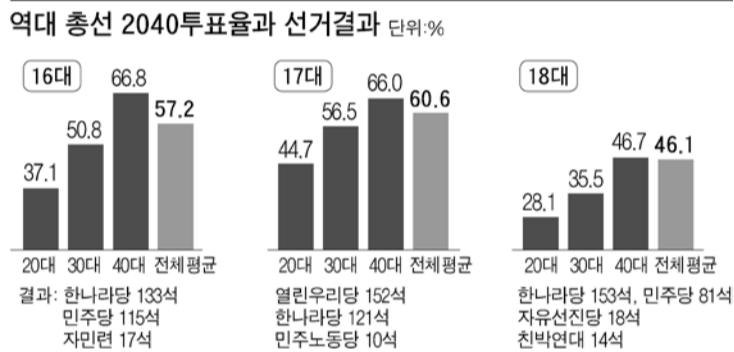
- 2010년 7월 4일 전후 무순 일일
- ▶ 2010년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 ▶ 7월 3일 총리실, 자체 조사 착수
 - ▶ 7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철저한 진상 조사 지시
 - 4차 회동 의혹(청와대의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총리실의 진경락 과장, 김충곤 점검1팀장)
 - 진 과장과 최 행정관,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 기록 삭제하라” 지시
 - ▶ 7월 5일
 - 장 주무관,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이레이저) 이용해 총리실 컴퓨터 내 자료 삭제
 -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가담자 검찰 고발
 - ▶ 7월 7일 장 주무관, ‘다가우징’ 방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완전 파기
 - ▶ 7월 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총리실 압수수색 시작으로 수사 착수

총선 승패 갈랐던 2040투표율 이번엔 ...

역대 선거 비교해 보니

17대 45~66% 열린우리 과반
18대 28~47% 한나라당 압승

“이슈 많고 12월 대선 전초전
젊은세대 10%P는 높아질 듯”



트위터에선 요즘 ‘민간인 사찰’과 ‘김용민 막말’ 간 트윗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보기획사인 미디어컴이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트위터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사찰’이란 단어가 들어간 트윗은 KBS 세노조가 문건을 공개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일 3만 건 안팎까지 급증했다가 4월 4일 8542건으로 누그러졌다. 반면 3일 민주통합당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의 인터넷 성인 방송 막말이 퍼지면서 ‘김용민’이란 단어가 들어간 트윗이 9328건을 기록하며 연일 트윗 양이 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 이용자층인 20~40대 유권자의 여론을 잡으려는 여야 지지세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9대 총선에서도 2040세대의 투표율은 승패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50여 곳 이상이 오차범위 내 초박빙 격전지로 나타나면서 2040의 투표율이 관세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졌다. 역대 총선의 2040 투표율과 선거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야권인 민주당이 유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선 20대 44.7%, 30대 56.5%가 투표했고 결과는 당시 열린우리당(152석)의 승리였다.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쳤다. 4년 뒤 18대 총선에서는 20, 30대 투표율이 각각 28.1%, 35.5%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때는 한나라당이 153석의 과반의석을 얻었다. 앞서 벌어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20, 30대 투표율(37.1%, 50.8%)이 17, 18대 총선의 중간 수준이었다. 선거 결과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으로 분할됐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나 김용민 후보의 막말 과문 등 정국 이슈가 불거진 데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서울대·전남대·경북대 등 대학 순회강연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 이번 선거의 젊은 층 투표율이 역대 선거보다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재찬 본부장은 “이번 총선은 반값 등록금이나 민간인 사찰 등 젊은 세대와 민감한 이슈가 부각된 데다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18대 총선 때에 비하면 2040세대 투표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5~6일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장의 풍경이 달라졌다. 각 대학 총학생회가 2000명 이상 부재자 신고자를 모집해 학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곳이 경희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29개 대학에 달했다. 18대 총선 때 3개 대학에 불과했는데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효석·허진 기자
jipol@joongang.co.kr

강원랜드 카지노 임시휴장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12. 4. 10(화) 오전 6시 ~ 4. 11(수) 오전 10시

강원랜드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
강원랜드 카지노는 보다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06시 ~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28시간 동안 임시휴장을 실시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강원랜드는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위해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 기간 동안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하이원리조트 시설은 정상 영업합니다.

2012년 4월 6일
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가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공모직위 : 비상임감사 1명 (무보수 명예직으로 소정의 월정액 수당 지급)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 응모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비상임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
 -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직무수행요건 면세서 참조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4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5매 내외)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학위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면접 일시·장소 개별통보)
-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2. 4. 6(금) ~ 2012. 4. 13(금)
 - 제출장소 : (우)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59(구미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지원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 (☎ 031-728-7018, 7329)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입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